

가정폭력 이럴수가...

중2친딸 상습성폭행...친구집 전전

96. 7. 3

아내는 학대 못이겨 정신병원 입원

40대 무직 가장영장...“법제정 시급”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온 가정폭력이 끝내 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고 상습폭행에 시달린 부인이 정신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사태로까지 번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지난 94년 4월부터 자신의 딸(13·중 2)을 일주일에 2~3차례씩 성폭행 및 성추행해 온 혐의로 진아무개(43·무직·대전 유성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진씨는 지난 9년 동안 자신의 아내인 0씨(35)를 상습적으로 때려, 0씨는 올해 4월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밝

혀졌다.

딸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나면 원산폭격을 시키고 고무호스로 때렸다”며 성추행과 함께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밝혔다. 딸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밤마다 친구집을 전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딸은 지난달 12일 아버지가 학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결국 자신의 처지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으며, 학교 교사와 성폭력상담기관이 개입하면서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

면 지난해 접수된 1천21건의 성폭력 및 성추행 신고건수 가운데 친인척에 의한 가정내 성폭력이 14.2%나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친인척의 성폭력은 순간적인 충동보다는 아내와 자식에 대한 학대와 구타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악화된 형태로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만이 이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주희(29) 위기센터실장은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가능하도록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용인 기자